

“더이상은 못참겠다 이명박은 퇴진하라!”

8 홍미리 기자 | ① 승인 2011.12.09 19:17

민주노총 전조직 확대간부파업...한미FTA 날치기무효! 이명박퇴진! 민주노총 결의대회



▲ 9일 오후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열린 '한미FTA 날치기무효! 이명박퇴진! 민주노총 결의대회'에 참가한 민주노총 간부들과 조합원들이 민중의례를 하고 있다.이명익기자

민주노총 전 조직이 한미FTA 날치기를 규탄하고 비준무효를 촉구하며 확대간부 파업을 벌였다.

민주노총 전국지역 확대간부들은 9일 이명박-한나라당정권의 한미FTA 비준안 날치기 범죄에 맞서 확대간부파업을 단행하고 서울을 비롯한 10개 이상 지역에서 민주노총 지역본부를 중심으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서울 대한문 앞에서 9일 오후 4시 열린 '한미FTA 날치기무효! 이명박퇴진! 민주노총 결의대회'에 집결한 서울지역 간부와 조합원들은 이명박정권의 노동기본권 말살과 한미FTA 강행에 비난 목소리를 쏟아냈다.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은 대회사로 통해 오늘이 한국이 ILO에 가입한지 20주년 되는 날이고, 오는 26일이 지난 1996년 김영삼 정권의 노동법·안기부법 날치기에 맞서 민주노총이 총파업을 결행한지 15주년이 되는 날임을 상기하고, 노동기본권 보장과 한미FTA 전면폐기를 위한 투쟁에 민주노총이 선봉에 서자고 역설했다.

“오늘은 우리나라가 문명국가라면 가입하게 돼 있다는 ILO(국제노동기구)에 가입한지 20주년이 되는 날이지만 오늘날 우리는 행복하지 않으며, 노동자들 현실은 여전히 어렵고 힘들다”고 말한 위원장은 “한국은 ILO가 말하는 노동기본권의 가장 핵심이 되는 결사의자유 등을 보장하는 87호와 94호조차 아직까지도 비준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이 9일 오후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열린 '한미FTA 날치기무효! 이명박퇴진! 민주노총 결의대회'에서 대회사를 하고 있다. 이명익기자

김 위원장은 “한국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은 ILO기준 128위라는 수치스러운 결과를 갖고 있으며, OECD 국가 노동통계 조사는 우리나라 노동자들이 경제위기에 가장 취약한 것으로 분류했다”고 말하고 “이 척박한 노동조건에 한미FTA까지 더해진다면 우리 노동자들 삶은 더 벼랑 끝으로 내몰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영훈 위원장은 “이미 한나라당은 해체수순에 들어갔으며 내년 총선에서 그들은 과거 자민련 수준으로 전락할 것이 분명하다”면서 “오는 26일 과거 김영삼정권 노동법·안기부법 날치기에 맞서 총파업을 성사시켜 그들의 몰락 신호탄을 알린 것처럼 그 역사를 이어 제2의 역사적 투쟁을 만들자”고 격려했다.

오늘 대회 참가자들은 “한미FTA 날치기 무효!”, “한나라당 해체!”, “이명박 퇴진!”이라고 적힌 피켓을 높이 들고 “더 이상은 못참겠다 이명박은 퇴진하라!”, “물가폭등 민생파탄 이명박정권 퇴진하라!”고 구호를 외치며 이명박-한나라당 정권에 대한 분노를 표출했다.

이태호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과 백석근 건설산업연맹 위원장도 잇따라 한미FTA가 우리 노동자민중에게 끼칠 피해를 조목조목 지적해 비판하고 노동자들이 맨 선봉에서 한미FTA 비준절차를 강행하는 이명박정권을 강력히 규탄했다.



▲ 9일 오후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열린 '한미FTA 날치기무효! 이명박퇴진! 민주노총 결의대회'에 참가한 민주노총 간부들과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명익기자



홍미리 기자 gommiri@naver.com

저작권자 © 노동과세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